

2005년 유우군 검정농가 순회교육 개최

유우개량부 등록팀장
박상출



본회에서는 12월 5일 부터 9일 및 12일 6일간에 걸쳐 전국의 검정농가들을 대상으로 총 6 개 권역으로 나누어 「2005년 유우군 검정농가 순회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영남권역 91명, 호남권역 110명, 충청권역 120명, 경기남부권역 115명, 경기북부권역 110명, 경기남부권역 150명 등 총 796명의 본회 검정농가들을 비롯한 관련인들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본회가 주최, 종축개량산유능력 검정중앙회가 주관 및 농림부와축산신문사가 후원하여 매년 하반기에 실시해 온 행사로 이번 교육에서는 「위기의한국낙농그러나 희망은 있다」라는 대농가 의식교육으로 충북 청원군의 태산목장(대표:곽한무)을 우수목장으로 선정하여 동영상 제작 및 방영하고 낙농산

업 활성화와 위기타과를 위한 간담회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또, 우수군 검정사업에 공로가 지대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였다.

본회 박순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갑작스런 폭설로 많은 농가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데 위로의 말을 전하였으며, 본 행사에 대해서는 “젓소의 개량방향을 낙농가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애생산성에 두고 경제수명이 긴 고능력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혈통등록, 우수군검정과 연계한 선형심사의 강화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는 시스템 구축과 한국홀스타인품평회를 소비자와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 조옥향 회장은 “그동안 생산성과 수익향상에 역점을 두어 제공됐던 젓소검정사업 자료는 앞으로 친환경축산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국내 원유가 안전하다는 믿음과 신뢰를 심어 주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우수목장 사례발표에서는 우수목장으로 선정된 태산 목장은 1982년 3월 젓소 7두로 목장을 시작하여 1995년 불모지였던 산 4만여평을 계단식으로 개간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태산목장 곽한무 대표

하면서 원유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면서 개량사업에도 혼신을 다하고 있을뿐 아니라 한국홀스타 인품평회에서 그랜드챔피언을 두번 (1992년, 1999년)이나 수상하는 등 결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목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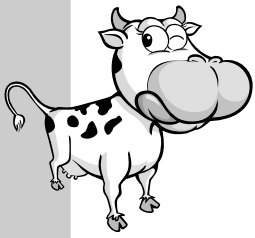
한편, 태산목장은 현재 경산우 35두, 미경산우 34두, 비육우 35두 등 모두 105두를 가족노동형으로 기르고 있는데 대물림 수업을 받고 있는 두 아들의 계획은 경산우 50두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2톤을 납유하고, 비육우 5백두를 사육하는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하고자 하면 안되는 일은 없다.」는 교훈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개체별 유량을 기록하면서 세심한 개체 관리에 몰두하는 성실성 등으로 청취자들로부터 현장감 넘치는 교육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은 경

산우 50두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2톤을 납유하고, 비육우 5백두를 사육하는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하고자 하면 안되는 일은 없다.」는 교훈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개체별 유량을 기록하면서 세심한 개체 관리에 몰두하는 성실성 등으로 청취자들로부터 현장감 넘치는 교육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축산정책방향 강의 : 농림부 최염순 박사



허청재 박사

축산농가 경영안정 등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행사에 참석한 농가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정책건의를 받는 시간을 갖는 등 참석자들로부터 낙농가들의 권익대변에 최선을 다하는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전에 없던 의식개혁을 위한 강의의 시간을 가졌는데, 영남권역 및 호남권역에서는 허청재 박사가 「위기의 한국낙농 그러나 희망은 있다.」라는 주제로 낙농현황과 전망, 목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수사항 등에 관해 직시하고 대안제시를 하였고, 아산 권역에서는 한경대학교 장경만 교수가 「한경대 낙농특성화 사업단과 생명농업」이라는 주제로 사업단 구성에 이은 결과물로 참여목장의 경영개선사례, 외국의 사례 및 향후 방향에 대한 강의를 있었으며, 경기 남부권역에서는 솔로몬기업연구소 김동신 교수가 「컨설팅을 통해 본 낙농인의 의식개혁 필요



장경만 교수

성」이라는 주제로 낙농분야 종사자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의 전반적인 의식개혁에 관해, 또, 경기북부권 역과 서부권 역에서는 축산신문사 윤봉중회장이 “대부분의 과일 주스가 인체 어디에 좋다는 등의 예찬론이 난무하는 반면 정작 영양 덩어리인 우유는 오래 살려면 우유를 먹지 말라는 책이 나와도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등 우



축산신문:윤봉중 회장

유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홍보가 절실하다”는 말로 시작해 “우유소비는 물론 깨끗한 목장과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여성낙농가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고 축사시설건립이 가능하게끔 하는 농지법개정 등의 정책방향 등 다양한 낙농현안에 대해 낙농가들의 이해를 도왔다.

<표 1>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유공자 포상자 내역(한국중축개량협회장상)

일 정	지 역 별	대 상 자	비 고
12월 5일	영 남 지역	남진희(축산주사)	경북도청
12월 6일	호 남 지역	안인갑(축산계장)	정읍시청
12월 7일	충 청 지역	임성래(낙농담당)	예산군청
12월 8일	강원 및 경기 남부	양봉직(축산유통계장)	이천시청
12월 9일	경 기 북 부	안문중(축산주사)	포천시청
12월 12일	경 기 서 부	홍승원(축산계장)	평택시청



공로패시상:경상북도 남진희 계장



우수목장 비디오 시청장면



협찬업체 홍보장면



접수장면